FIXED INCOME ISSUE REPORT

2026. 1. 21.

글로벌채권팀

김지만 Senior Analyst
jiman8.ki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금리 상승과 레벨에 대한 판단

물가 지표와 수정 경제전망 확인까지 경계감 이어질 가능성

- 금통위 이후 채권금리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일본 장기채 금리 상승이나 그린란드 이슈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 등이 국내 채권시장에도 영향
- Forward 금리로 판단하면 2차례 수준의 기준 금리 인상은 반영한 레벨. 그럼에도, 1월 소비자물가 지표와 2월 수정 경제전망 확인까지 경계감이 이어질 가능성

금리 상승 배경은?

1월 금통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확인한 1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문구가 사라진 점이나 소수 의견과 포워드 가이던스 변화 모두 한은 기준 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당사는 연내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연내 인하를 예상하는 기관들이 남아있었고, 그 중 다수는 1월 금통위를 계기로 인하 전망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에서는 일본 장기채 중심으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 국채의 경우는 그린란드 이슈 등을 이유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국내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리 레벨에 대한 판단

전일 종가 기준으로 국고채 10년물은 3.65%까지 상승했다. 이는 기준 금리 대비 115bp까지 확대된 수준이다. Forward 금리로 판단하면 향후 2차례 수준의 기준 금리 인상은 이미 반영한 레벨이다. 현 수준의 금리면 여러 악재를 감안해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까지 상승한 '21~'22년의 사례를 제외하면 많은 사례에서 기준 금리 대비 국고 10년물 금리는 100bp 수준이면, 그보다 확대된 기간이 길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글로벌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진 2013년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사례에서는 기준 금리 대비 국고채 10년물이 최대 126bp까지 확대되었고, 2차례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개된 2017~2018년의 경우 동 스프레드는 최대 136bp였다. 이러한 과거 경험치 내에서 생각하면 국고 10년물이 현 수준보다 10~20bp 추가 상승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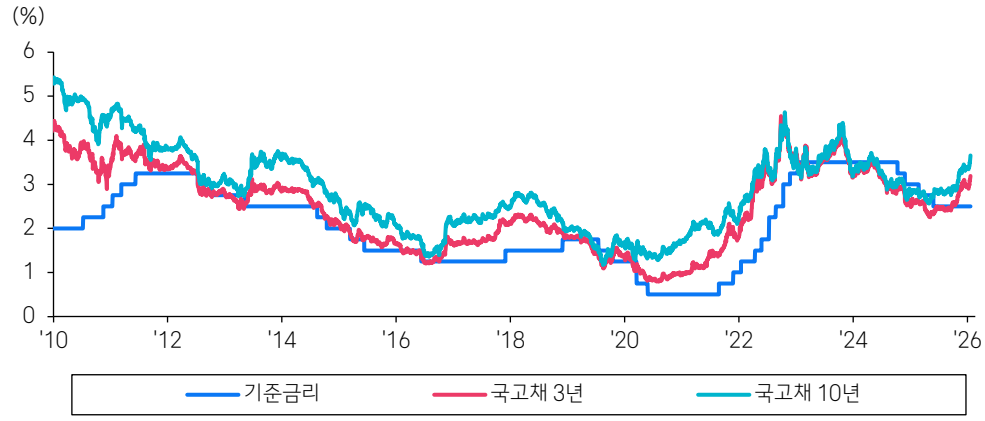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실제 데이터와 한은의 스탠스 변화를 더 확인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상황이므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인(2/3일)과 2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 시점(2/26일)까지 시장의 경계감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월 물가를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추정하면, 농산물 가격은 보면 전월비 +0.1%p 기여하고 있으며 휘발유, 경유 등은 전월비 마이너스(-)로 예년보다 상승 압력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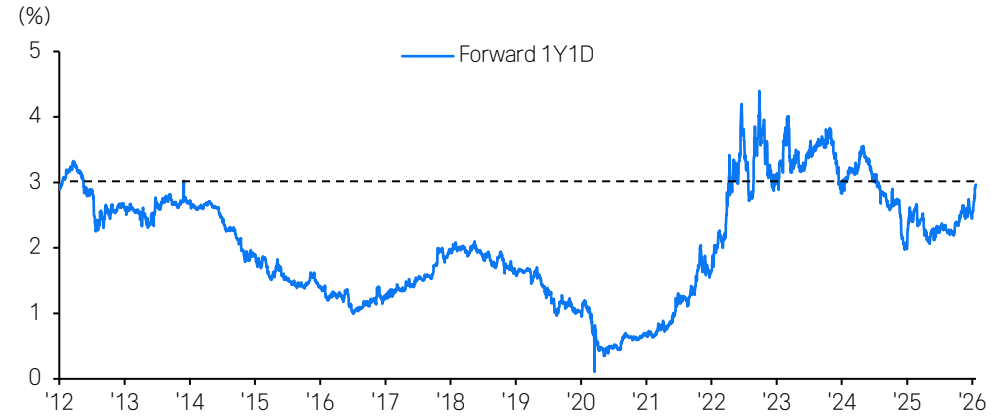
삼성증권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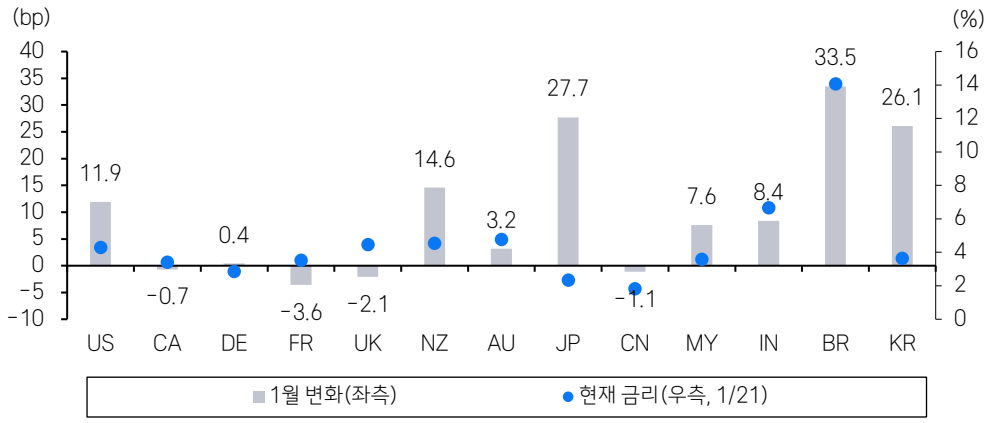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Forward로 판단하면 향후 2차례 수준의 기준 금리 인상은 반영한 레벨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월 중 글로벌 금리 변화(국채 10년물)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